

洪性完 · 張順玉 박사부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부원장> <수원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결혼후 美 일리노이대에 함께 유학

'70년대 초 서울대를 졸업하고 철도청에 근무하던 洪性完박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부원장)와 경북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다니던 張順玉박사(수원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결혼 후 함께 미국에 유학해 일리노이대에서 부부가 모두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료교사로 친하게 지내던 양가 어머니들 소개로 처음 만난 洪·張박사는 미국 유학중 남매를 낳아 출산과 육아 등으로 어려웠던 유학생활을 보냈으나 지금은 귀국해 연구와 후진 양성에 힘쓰고 있다.

“동료교사로 친하게 지내시던 양가 어머니들의 소개로 만나게 됐습니다. 당시 저는 철도청에 근무중

이었고, 장교수는 대구에서 대학원에 다니며 교편을 잡고 있었던 때입니다. 양가에서는 결혼까지 바라

셨던 모양인데, 장교수의 학업에 대한 열망 때문에 한때 위기도 있었지만 잘 극복하고 평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양가 모친은 절친한 동료교사

72년쯤이었는데 1년 정도를 기차를 타고 오가며 만나던 어느 날 장교수가 절교를 선언, 두사람은 헤어졌다. 1년후 홍박사가 점촌보선사무소장으로 있을 때 장교수가 석사학위 논문을 보내며 다시 접근해와 홍박사가 못이기는 체 이에 응했다는 것이 홍박사의 회고다. 당시 장교수는 시집을 가면 공부를 못하게 될 것 같아 공부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일단 후퇴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한다.

1974년 5월 결혼하자마자 8월에 홍박사가 먼저 미국으로 갔고, 한학기 후 장교수도 뒤이어 갔다. 이렇게 해서 75년 1월에서야 비로소 외국에서 신혼생활을 하게 된 두사람은 학비를 제외하고는 외화소지가 2백달러 밖에는 허용되지 않던 시절이라 매우 어려운 생활을 꾸려 가야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유학땀 출산·육아로 어려움

이 기간중 진짜 어려웠던 일은 경제적 곤란보다는 출산과 육아문제였다고 한다. 첫 아이의 출산일이 장교수의 학기말 시험과 겹쳐 시험을 치르는 동안 홍박사가 시험장 밖에서 대기하는 등 긴장의 연속이었다고 한다. 게다가 당시 경제적 사정이 너무 어려워 10년 묵은 중고차

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으려 했던 일까지 있었다. 때문에 둘째 아이를 낳은 후에는 둘을 모두 데리고 있을 사정이 못돼 귀국해서 둘째 아이를 장교수 친정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둘째는 이 때문에 2년을 외가에서 보냈는데 지금도 장교수는 둘째에게는 모유를 먹이지 못한 것을 미안해 한다. 혹시라도 몸이 아프기라도 하면 그 탓인가 싶어서...

또한 한국에서는 공부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외국학생들에 비해 영어에 어려움을 겪다보니 성적도 기대한 만큼 오르지않는 등 날마다 스트레스만 쌓여갔다고 한다. 그래서 가끔 서로에게 폭발시키는 경우까지 생기고 다투기도 많이 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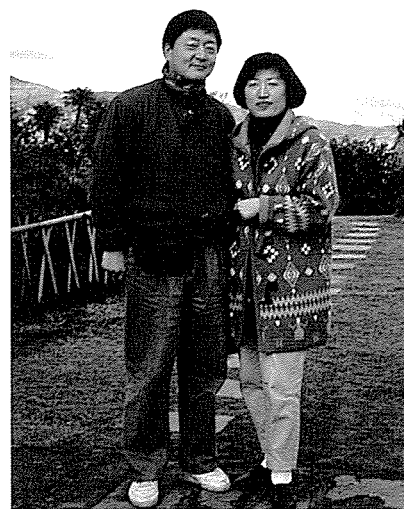
당시 장교수는 실험실 조교생활을 하며 귀가해야 할 시간에 맞춰 동물 실험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실험이 늦어지거나 하면 가족 생활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고 말한다. 또한 동물 실험에 사용되는 실험 쥐 등까지 보살피야 해 밤낮은 물론 주말까지도 이에 매달려야 할 정도로 여유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처럼 어렵게 유학시절을 보냈던 두사람은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서로에 대한 동질성과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고 한다.

25년 결혼생활로 판이한성격 비슷해져

성격이 판이한 탓에 젊을 때는 다투기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남들이 남매냐고 물어올 정도로 많이 비슷해졌는데 다만 아직도 서로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설거지후 수저를 수저통에 어떤 방식으로 꽂느냐는

것 등 사소한 일(?)에 대한 견해 차이뿐이라고 웃는다. 그렇지만 워낙 성격이 대조되는 두사람은 약속 시에도 홍박사가 30분 정도 먼저 나가 기다리는데 반해 장교수는 늦기가 일쑤이고, 갑자기 일어날 지도 모를 일에 대비해 홍박사가 항시 비상금을 챙기는데 반해 장교수는 매사에 태평한 편이라는 것. 그래서 장교수는 홍박사와 함께 다니면 걱정할 일이 없다고 한다.

젊어서 어려운 생활을 한 탓인지 두사람은 이웃을 보는 눈이 따뜻하다. 직접 어려운 이웃을 찾을 사정은 안되지만 기부금을 낸다든지 하는 일에는 항상 적극적이다. 외조부(崔奎東·중등학교 설립자, 서울대 초대총장)와 아버님(洪萬植·중동중고교 교감으로 있던 중 6.25당시 피랍됨)을 비롯 어머님(崔性玉)이 모두 교육자였던 홍박사나 어머님이 교육자셨던 장교수 모두 집안의 분위기에 젖어 바른 심성과 뚜렷한 가



▲ 지난 '94년 홍성완박사의 50회 생일날 네팔의 카투만두에서 다정하게 포즈를 취한 洪·張박사 부부

치관을 형성할 수 있어서 스스로도 이런 모범을 보이려 노력하고 있고, 자녀들에게도 나름대로의 생의 목표를 확실하게 세울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녀들에게 과외나 학원 한번 보내지 않았는데도 공부를 잘한다고 대견해 한다. 첫째 딸인 수연양은 연세대 토목공학과 4학년, 둘째인 태준군은 서울대 화학공학과 2학년에 재학하고 있다.

홍박사(55세)는 66년에 서울대를 졸업하고, 83년에는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지반공학을 전공해 공학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84년 귀국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근무해오다 지난 95년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부원장을 맡고 있다. 부원장을 맡은 후 연구원의 하진규원장과 함께 연구원의 일산 이전을 완료하고 연구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일에 앞장서고 있다. 지금은 도로의 경사지표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홍박사는 내년에 있을 '국제 토질기초 공학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맡아 준비에도 분주하다.

국민영양 개선과 관련한 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장교수(50세)는 최근에는 식품의 영양표시제도 도입을 위해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식생활의 과학화를 위해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 못지 않게 영양성분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의 제도 등을 비교 연구중이라고 한다. 장교수는 71년 경북대를 졸업한 후 83년에 일리노이대학에서 영양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87년부터 수원대 식품영양학과에 재직중이다. 67

송해영<본지 객원기자>